

- 주요 뉴스: 중국 4월 소매매출 및 산업생산, 전월비 큰 폭 감소. 경제봉쇄 영향이 확대
 - 미국 뉴욕 연은 총재, 신속한 금리인상 필요. 모기지담보부증권 매각은 신중히 접근
 - 유럽위원회, 금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러-우 전쟁 등을 반영
 - EU, 기업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매입을 허용. 결제는 달러화 혹은 유로화만 가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 지속 및 중국 경제지표 부진 등이 영향

주가 하락[-0.4%], 달러화 약세[-0.3%], 금리 하락[-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대형기술주 등이 하락을 주도
유로 Stoxx600지수는 광물 및 유틸리티 관련주 강세 등으로 강보합 마감
 - 환율: 달러화지수는 그 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 출회 등이 주요 원인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2%, 0.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280.8원, -3.3원) 0.3% 하락, 한국 CDS 보합

		5/16일	5/13일	전일대비			5/16일	5/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08.0	4,023.9	-0.39%	국채 금리 10y	미국	2.88%	2.92%	-4bp
	유럽	433.67	433.48	0.04%		독일	0.94%	0.95%	-1bp
	중국	3,073.7	3,084.3	-0.34%	CDS 5y	한국	46bp	46bp	0bp
	일본	26,547	26,428	0.45%		중국	82bp	83bp	-1bp
	한국	2,596.6	2,604.2	-0.29%	위험 지표	EMBI+	-	410	-
환율	달러지수	104.23	104.56	-0.32%		VIX	27.47	28.87	-4.85%
	유로화	1.0434	1.0412	0.21%		WTI유	114.20	110.49	3.36%
	엔화	129.16	129.22	0.05%	원자재	구리	419.7	418.1	0.38%
	위안화	6.7861	6.7892	0.05%		금	1,824.1	1,811.8	0.68%
	원화	1,284.1	1,284.2	0.0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중국 4월 소매매출 및 산업생산, 전월비 큰 폭 감소. 경제봉쇄 영향이 확대

- 4월 소매매출은 전년동월비 11.1% 감소하여 전월(-3.5%) 및 예상치(-6.0%) 하회. 이는 '20년 3월 이후 최대폭 감소. 4월 산업생산 역시 전년동월비 2.9% 줄어 전월(5.0%)과 예상치(0.7%) 대비 부진. 이번 감소폭은 '20년 2월 이후 최대
- 전문가들은 경제봉쇄가 소비 및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진단. ANZ는 경제봉쇄 여파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향후 수 년 동안은 성장률이 4.0~5.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고 경고
- 이에 전문가들은 당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그러나 공격적인 금리인하 혹은 대규모 재정지출 등의 강력한 완화정책이 어려운 상황. 미국과의 금리 차 축소로 자본유출 혹은 환율 불안정 등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
- 또한 Pinpoint Asset Management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조정되지 않으면 경기부양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한편 북경대학의 Michael Pettis는 지금까지 상당수의 정부 대책이 공급 부문에 집중되었는데, 이제는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수요를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뉴욕 연은 총재, 신속한 금리인상 필요. 모기지담보부증권 매각은 신중히 접근

- 윌리엄스 총재는 6월 FOMC에서 0.5%p 금리인상이 합리적이라고 발언. 인플레이션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첨언. 한편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모기지담보부증권 매각은 대차대조표가 어느 정도 축소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부연

■ 유럽위원회, 금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라우 전쟁 등을 반영

- 금년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4.0%→2.7%), 내년 성장률 전망은 2.3%로 제시. 파울로 젠틸로니 경제 커미셔너는 라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 심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
- 한편 물가상승률 전망은 금년의 경우 상향(3.5%→6.1%)하고 내년은 2.7%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이에 시장 일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EU의 재정준칙 적용 일시 중단을 좀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

■ EU, 기업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매입을 허용. 지금은 달러화 혹은 유로화만 가능

- 역내 기업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매입 이후 기존 계약대로 유로화 혹은 달러화로 대금을 지불하면 EU의 제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 또한 러시아의 가스프롬뱅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막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수정
- 다만 러시아가 천연가스 판매 대금 지급 완료를 위해 요구하는 루블화 계좌 개설은 응하지 않을 방침. 이번 조치는 사실상 푸틴 대통령의 방침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이에 일부에서는 EU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효과에 의구심을 표명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과도한 유로화 약세는 역내 물가 목표 달성을 위협

-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유로화 약세가 달러화 표시 수입품에 대한 가격 인상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 한편 6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결정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름 기간에 보다 적극적인 실제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다고 언급

■ 중국 인민은행,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동결. 자본유출 우려 등을 고려

- 1년 만기 MLF 금리를 2.85%로 유지하고, 만기가 도래한 1000억위안 대출금에 대해서도 롤오버(roll over)를 결정. Credit Agricole의 Xiaojia Zhi는 인민은행이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긴축으로 금리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

■ 일본은행 총재, 완화적인 금융여건 조성으로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

- 구로다 총재는 기존의 완화적인 정책으로 경기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이를 통해 임금과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 한편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첨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5/16 현지시각 기준)

- 미국 5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11.6, 4월(24.6), 예상치(15.5)
- 중국 4월 고정자산투자(전년동월비): 6.8%, 3월(9.3%), 예상치(7.0%)

■ 주요 경제 이벤트(5/17 현지시각 기준)

- 연준 파월 의장, ECB 라가르드 총재,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라드 총재 강연
- 미국 4월 소매매출 및 산업생산, 유로존 1/4분기 성장률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기업실적 부진 지속, 성장과 증시에 부정적 여파 가능성 - WSI

(An Earnings Recession Looms)

- 1948년 이후 경기침체보다 기업실적 침체(기업이익이 2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감소)가 더 빈번하게 발생. 실적전망이 개선될 것이라는 이전의 예상과 달리 인건비 상승 등이 기업이익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
-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사업 불확실성도 이익증가를 저해하는 요인. 유럽 경제는 러-우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국 성장둔화의 여파는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 또한 달러화 강세와 연준의 금리인상도 기업실적과 증시에 암운을 드리우는 요소

■ 미국 신용시장의 부진,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 조절 및 증시 부양은 기대난 - 블룸버그

(Credit Market Pain Is Too Muted to Save Stocks)

- 최근 미국의 투자등급 채권과 고수익 채권 가격이 각각 13.4%, 10.4% 하락. 그러나 이는 파산 등의 리스크 증가가 아닌 국채 수익률 상승의 여파. 해당 영향을 제거 시 고수익 및 투자등급 채권 가격은 각각 0.7% 상승, 0.5% 하락으로 변동이 제한적
- 실제로 최근 기업 재무상태는 20년래 가장 건전하여 신용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은 상황. 이는 당국의 주가부양에 부정적. 연준이 주가 하락보다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중요시하기에, 신용시장 부진에도 통화긴축 속도 조절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 유로화, 미국 달러화와의 등가(Parity) 유지도 실패할 가능성. 이후 회복 기대 - 블룸버그

(The Euro Will Survive Falling Below Parity With the Dollar)

■ EU의 암호화폐 시장 대응, 신규 규제보다 기존 투자지침 적용이 요구 - Financial Times

(EU's proposed crypto regulations are flawed)

■ 식량 위기 대응, 식량 원조 보다 현금 및 생산 지원이 효과적 - Financial Times

(Food insecurity is a bigger problem than energy)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